

## 전주시, 출연기관 7곳 경영평가…성과 중심 강화

등록 2026.05.04 13:41:32



[전주=뉴스시스]윤난슬 기자 = 전주시청.(사진=뉴스시스DB)

[전주=뉴스시스] 윤난슬 기자 = 전북 전주시는 출연기관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 평가 체제로 개편하고 올해 7개 출자·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.

평가 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며,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총 6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.

평가 체계는 ▲경영관리 ▲경영성과 ▲고객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, 특히 성과 중심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개선됐다.

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관장 평가 비중이 조정됐다. 기존 기관장 성과계약 달성도와 경영평가 결과를 각각 50%씩 반영하던 방식에서 경영평가 결과 비중을 80%로 확대하고 성과계약 달성도는 20%로 축소했다.

이를 통해 기관장의 책임의식과 실질적인 경영성과 평가를 강화하고, 기존의 관대화 경향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.

평가 결과는 기관장 연봉 인상률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에 반영된다. 성과급은 S등급 100%, A등급 80%, B등급 60%, C·D등급은 미지급된다.

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"이번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